‘출가 전 이력 따른 소임 제한법’ 상정 보류

종헌특위, 6월 4일 제11차 회의서 결정
내부 비판 다수…의견수렴 후 발의키로
‘사찰법’ ‘호계원법’ 개정안 등 최종 점검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 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 스님, 종헌특위)가 최근 성안한 결혼 등 출가 전 이력 기준으로 소임을 제한하는 종법 개정안을 6월 10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보류키로 했다. 종헌특위는 관련법안에 대한 내부 의견을 수렴한 후 더 세밀하게 의견을 모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종헌특위는 6월 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11차 회의를 열고 6월 10일 개회하는 234회 임시회에서 발의하기로 한 법안들을 최종 점검했다.

이날 만당 스님은 종도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눈 후 상정할 것을 요청했다. 스님은 “최근 성안한 승려사정 ‘갑을병정’으로 인해 소임 제한을 받는 스님이 10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종단 구성원 내부에서 강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고, 차별 등 여러 의견이 나오는 만큼 종도들의 의견을 취합해 꾸준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선광 스님은 “이번 제안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차별이 아니”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어 종책모임 선우회가 이에 대해 발표한 성명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만당 스님은 “좀 더 논의해 확실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시기를 봐야한다”면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세밀하게 판단해 비판받을 소지를 없애고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광 스님은 “앞으로 ‘병’ 출가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상속 유류분 관련 분쟁이 많아질 수 없는 상황에서 소임 제한은 꼭 필요한 것”이라면서 “종도들의 우려가 큰 만큼, 발의를 보류하고 더 깊이 논의해서 법안을 다듬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출가 전 이력 기준으로 소임을 제한하는 종법 개정안은 6월 임시회에서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날 종헌특위는 3월 임시회에서 이월된 사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

‘사찰법 개정안’은 세부적으로 보완된 수정안이 올라왔다. 만당 스님이 제안한 사찰법 제23조 중창주 권리에서 6항 ‘쇠락하고 피폐한 공찰의 사격 및 역할을 현격히 격상시킨 경우’에서 ‘사격을 현저히 격상시킨 경우’의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에서다.

만당 스님은 “쇠락한 공찰의 사격을 일신해도 그 공로가 인정되거나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공찰 주지를 하면서 인근에 사설사암을 창건해 나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로인해 사찰이 피폐해지거나 어려워져 형해화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서 “또한 선거 후 논공행상에 따라 열심히 가람수호와 포교, 지역사회활동을 해 사찰을 발전시키고 있는 주지를 교체함으로써 사찰이 일순간에 그 위상이 추락하는 문제점들을 중창주 권리 안정을 통해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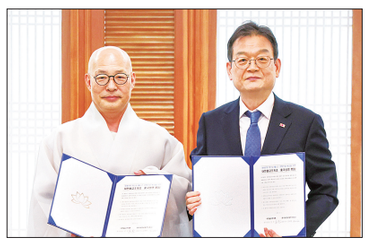
이 밖에도 종헌특위는 중앙종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종무기관으로부터 제출받고 있는 상황을 종법 상으로 규정하고 총무원, 호계원, 종단 산하기관 등에서 자료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종앙종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림 방장 후보 선출시 산종 총의를 모으기 어려울 경우 무기명 투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산중총회법 개정안’, 초심호계위원 2인을 증원해 9인으로 하는 ‘호계원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회 제234회 임시회는 6월 10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회한다. △종헌 개정의 건 △불기2568(2024)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결산검사의 건 △종무보고의 건 △종책질의의 건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의 건 등이 다뤄진다.

조계종·흥국생명 제례문화 확산 MOU

6월 5일, 웰니스문화산업 육성 업무협약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대표이사 김대현)와 업무협약을 맺고 제례문화 확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사진〉



이번 협약은 올곧은 제례문화 정착과 확산을 도모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과 공동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조계종과 흥국생명은 불교 전통 제례문화 보급 및 발전을 촉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웰니스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치유, 평안,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프로그램을 통해 제례의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이 되고 서로 좋은 작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현 대표이사는 “서비스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선명상 홍보와 대중화에도 함께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제18대 종회의원 보궐선거 우경 스님 선출

조계종 직능대표선출위, 6월 4일 만장일치 결정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사회) 보궐선거에서 우경 스님〈사진〉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직능대표선출위원회(위원장 진우 스님)는 6월 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영조 스님, 성월 스님, 원명 스님, 호산 스님, 계호 스님 등 선출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했다.

앞서 조계종 중앙선관위원회(위원장 태성 스님)는 5월 21일 제418차 회의를 열고 단독출마한 우경 스님의 자격에 ‘이상없음’을 결정한 바 있다.

우경 스님은 종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2003년 범어사에서 보성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2007년 직지사에서 성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현재 사성암 주지다. 임은호 기자

서울 승가사 주지에 자항 스님

총무원장 진우 스님, 6월 4일 임명장 전달

조계종 직할교구 서울 종로구 승가사 주지에 자항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6월 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자항 스님에게 주지 임명장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됐다”면서 “가람 수호에 힘쓰고 전법포교를 여법하게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자항 스님은 정호 스님을 은사로 1988년 수계했다. 운문사승가대를 졸업했다. 임은호 기자

밀교신문 27대 편집인 청효 정사 위촉

진각종, 5월 29일 위촉식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는 5월 29일 밀교신문 제27대 편집인에 통리원 기획실장 청효 정사를 위촉했다. 제32대 집행부 제1기 기획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청효 정사는 서원도량과 탑주심인당 교화보조를 거쳐 수계심인당, 식재심인당, 상륜심인당, 아축심인당 주교를 역임하고 현재 혜원심인당 주교로 있다.

청효 정사는 기획국 법무팀, 제34대 사감위원(간사), 제38대 현정부장, 현정원장직무대행, 기획실 기획위원, 예경실장, 대한불교진각종 유지재단 감사, 학교법인 회당학원 감사,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감사, 종의회 사무국장과 사무처장, 제13대 종의회 2차 종헌종법개정위원(간사), 제14대-15대-16대 종의회 의원, 제15대 종의회 종헌종법개정특별위원, 제16대 종의회 행정사회상임분과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신중일 기자

현대불교신문, 연화회와 불교장례문화 개선 MOU

연화회, 출장 다비·영결식 총괄
본지, 행장 정리·제작·홍보 지원



현대불교신문과 연화회는 업무협약을 맺고 불교 장례문화의 현대적 계승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현대불교신문이 불교장례전문업체 연화회와 불교장례문화 개선에 나선다. 본지(대표이사 한명우)는 6월 4일 서울 본사 대표이사실에서 연화회(대표 유재철)와 ‘불교장례문화 개선 공동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연화회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전통 불교장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다비식과 영결식의 전 과정을 총괄 지휘하며, 본지는 장례 시 고인 행장 정리, 취재 및 보도, 영결사·조사 등 원고 작성, 리플릿 제작, 홍보 및 의전 등 각종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본지와 연화회는 이번 불교장례문화 개선사업 전담 인력을 배정해 원활한 진행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연화회는 1994년 조계사 앞에서 불교 장의사로 시작해 그동안 수천명의 스님들과 불자들의 다비식과 불교장례를 진행했다. 불교장례용품 12가지를 개발, 특허 3개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전국 470여 사찰의 스님들의 장례와 다비를 봉행했다. 또 5명의 대통령 염습과 국가장 의례도 진행한 바 있다. 연화회는 2013년 전통식 다비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연화다비’를 개발, 사찰 등에서 날씨에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 출장 다비를 진행하고 있다.

유재철 연화회 대표는 “스님의 입적 후 여법한 장례 절차 뿐만 아니라 생전 가르침과 법을 마지막까지 전하는 일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현대불교신문이 스님들의 가르침을 전하고 선양하는 데 함께 나서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명우 현대불교신문사 대표는 “본지는 스님들이 삶에서 보여준 가르침을 전하는 한편 불교장례문화가 시대에 맞게 재정립, 불자들까지도 신행의 연장선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불기2569(2025) 을사년

해인사 生前預修齋 49일 기도

천년을 이어온 법보의 향기, 팔만대장경의 진리가 숨 쉬는 도량,
법보종찰 해인사에서는 이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참회와 발원을 통해 내세의 안락을 기원하는 **‘생전예수재生前預修齋’**를 봉행합니다.
생전예수재는 살아있는 동안 지은 허물과 업장을 깊이 참회하고 지극한 신심으로 공덕을 닦아 내세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인연을 짓는 큰 복전이 될 것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생전예수재에 수희 동참하시어, 모든 업장 소멸하고 상서선망 조상의 왕생극락과 가족, 이웃의 안녕을 기원하는 무량한 공덕을 쌓으시길 기원합니다.

운영법주 해인사 주지 혜 일



입재 7월 5일(음 6/11) 토요일 오전10시
초재~6재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막재(회향) 8월 22일(윤 6/29) 금요일 오전 10시
법회장소 해인사 대적광전 및 만불보전

동 참 금		
생 축	1인 3만원	
영가위패	1위 1만원	
설 판	大설판 100만원	中설판 50만원

▪문의 및 접수 접수실 055)934-3105~6
▪계 좌 안 내 농협 351-0744-6572-93 (예금주 : 해인사)

법보종찰 해인사



불설예수시왕생칠경 변상(해인사 소장)